만나고 싶었습니다

정진원 K Classic 콘텐츠연구소장

한국 인문고전의 '불교 자비' 세계에 알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백성을 위한 글자, 훈민정음으로 처음 새겨진 불교 경전은 〈석보상절〉이다.

정진원 교수(K Classic 콘텐츠연구소장 · 사진)는 이 책으로 불교에 입문해 문자 해독에서 마음 해석으로, 학문에서 수행으로 나아갔다.

국어학자에서 불교 연구자로, 다시 세계에 한국 인문고전을 전파하는 교육자로 살아온 그는 지금도 질문한다.

"문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2025년 봄, 긴 해외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그를 양산 통도사 인근 찻집에서 만났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과 원효 대사의 실천 불교에 담긴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그의 여정은, 한국 인문고전을 '살아 있는 콘텐츠'로 다시 써내려가는 일이다.

언어를 향한 호기심, 불교로 이어지다

"세상의 모든 언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정진원 교수가 처음 품은 꿈은 언어학자였다. 그 시작은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는 어린 그에게 큰 궁금증을 남겼다.

"사람들의 말은 왜 다를까?" "왜 말이 다르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언어는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세상을 나누는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 말과 글에 호기심이 피어올라, 초등학생 때는 혼자서 영어 단어장을 만들고 중학교 시절에는 라틴어와 일본어에까지 관심이 뻗어 나갔다. 언어는 그에게 하나의 세계였고, 말은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였다.

정 교수의 열정은 대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원문으로 공부하면서 구체적인 길로 이어졌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단순한 표기 수단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철학이자 정책, 신념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그러던 중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를 만났다.

"불교국가 고려에서 유교국가 조선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오랜 불교 정신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을 쉽고 빠르게 옮길 수 있는 방편이 훈민정음이었고, 세조도 〈월인석보〉 서문에서 '대장경 전체를 섭렵해 핵심만 추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신이 〈석보상절〉의 제목에도 담겨 있습니다. 석가모니 일대기를 '자세히 할 상(詳)'과 '생략할 절(節)'로 풀어낸 책이거든요."

한글로 전한 자비, 사람을 살리는 문자

국어학 전공자로서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등을 연구하며 박사논문을 썼지만 정작 불교에는 문외한이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봉선사 불경서당에서 봉선사 조실이자 대강백이었던 월운 스님에게 10여 년간 수학했고,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원에서도 공부했다. 이어 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삼국유사〉를 새롭게 만났고, '삼국유사의 한국학 콘텐츠 개발연구'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박사논문을 완성하며 불교와 인문고전을 잇는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됐다.

정진원 교수는 〈석보상절〉이 단순한 불교 경전 해설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자비의 발현이라고 말한다. 한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이 불경을 '처음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든 시도이자 문자로 베푼 구제라는 점에서다.

"훈민정음 창제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리는 큰 방편이며,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석보상절〉은 인간의 생로병사와 애별리고를 석가모니의 인생을 통해 절절히 교감하고 위로해 주는 책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로 언어에 호기심
"언어는 세상 이해하는 열쇠 역할
〈석보상절〉 만나 불교 본격 공부
불교와 인문고전 잇는 연구자의 길
고전, 살아있는 콘텐츠로 전환 매진

특히 그는 〈석보상절〉이 불교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지점이었다고 의미를 짚었다. 조선 초 유교 중심 국가 체제 속에서 신미 대사를 중심으로 한 11인의 스님과 학자들이 협력해 만든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종의 언어 정치와 원효의 실천 불교가 만나는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세종은 글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할 권리를 주었고, 원효는 민초들에게 처음으로 부처와 아미타불을 가르쳤다. 교수는 이 두 인물이 '누구나 읽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부처'라는 같은 마음을 공유했다고 본다. 문자로 전해진 여락(與樂)과 몸으로 건넨 발고(拔苦), 곧 자비(慈悲)다. 〈석보상절〉은 그 정신이 나란히 새겨진 인문고전이자 지금도 유효한 한국 정신의 원형이다.



터키 카이세리 큘테페 힛타이트 유적지에서 발굴단장과 함께한 터키 aTV 인터뷰 모습.



2024년 터키어 한자 교재 출간을 기념해 학생들과 촬영한 기념 사진.



2023년 열린 제11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기념촬영.

고전을 콘텐츠로…세계로 확장되는 실천

정 교수는 2000년 튀르키예 정부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튀르키예 국립 에르지예스대학교의 한국학과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한국어 계통론과 불교 문헌 연구를 연결 짓는 희소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최초의 한국학과 설립과 운영의 초석을 다졌다. 이후 2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학 도서관 설치, 강의 과정 설계, 현지 학생 양성에 힘씀으로써 한국학 전공이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10년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엘테대학교 한국학과에서 정교수(Prof. Dr.)로 초빙되어 훈민정음과 〈삼국유사〉, 〈월인석보〉 등을 직접 강의했다. 이후 2021년부터 다시 튀르키예에서 인문고전 중심의 한국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유라시아 각지에서 한국학 특강을 이어왔으며, 국제학술회의와 공동연구 프로젝트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유럽한국어교육자협의회(EAKLE), 중동유럽한국학회(CEESOK) 등에서 활동하며 고전 기반 한국학의 외연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인문고전을 살아 있는 콘텐츠로 전환하는 '실천'이었다. 그는 〈삼국유사〉를 고려 최고의 텍스트, 〈월인석보〉를 조선 최고의 텍스트로 꼽으며 두 작품 모두를 박사논문 주제로 삼았다.

"K-Pop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그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늘 짧게 답한다.

"K Classic(한국 인문고전) 콘텐츠입니다."

정 교수의 고전 교육은 강의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삶의 맥락 안에서 고전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SNS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제자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한국 인문고전에 담긴 정서와 불교의 가르침을 스며들게 한다. 귀국 후에는 외국인과 청년을 위한 '고전 읽기 공동체'를 만들어, 한국 고전과 불경을 함께 읽고 사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말 하고 싶은 건 함께 앉아 고전을 읽고 그것을 현재 삶에 녹이는 일이에요. 그걸 젊은 세대에게 대중화하고 외국인에게 세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가 내디딜 다음 걸음은 겨자씨로 시작하는 수미산일지 모른다. 대학 강의실이든, SNS의 짧은 문장이든, 혹은 사찰이나 대중 강의실 어디서든 그는 여전히 훈민정음과 불경, 그리고 원효라는 세 가지 길 위에 서 있을 것이다.

정진원 교수는…2000년부터 터키 · 헝가리 등에서 한국 인문고전의 대중화 · 세계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0년 헝가리 엘테대학교에서 〈삼국유사〉와 훈민정음 강의를, 2012년 독일 본대학 및 세종학당에서 경주 유적 답사와 운문사 템플스테이를 주관했다. 이후 2013년 독일, 2014년 오스트리아, 2015년 슬로베니아, 2016년 덴마크, 2017년 라트비아, 2018년 핀란드, 2019년 리투아니아 등지에서 한국 인문고전의 세계화를 실천해 왔다. 2021~2024년 튀르키예 국립 에르지예스국립대 한국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2021년부터 봉선사 불교대학에서 〈월인석보〉를 강의했고, 최근에는 서울 강남문화원에서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을 주제로 여행인문학 강의를 진행 중이다. 2023년 영축문화대상을 수상했다. 저서로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삼국유사, 자장과 선덕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 대장경의 길을 열다〉, 여행기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 등이 있다.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좋은 조건에 베테랑 가이드가 안내합니다.

1차 | 10월23일 출발~11월02일 도착(11일 일정)
2차 | 11월28일 출발~12월07일 도착(10일 일정)
3차 | 12월05일 출발~12월14일 도착(10일 일정)

▶ 일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1차 | 6월07일~6월22일(16일간)
2차 | 9월13일~9월28일(16일간)

▶ 일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 동참금 : 570만원

티베트 순례 7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 등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6월28일~7월04일(7일간)

▶ 동참금 : 299만원

인도 라다크 헤미스 축제 8일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8일(8일간)

▶ 동참금 : 36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5일(5일간)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광우사)-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일정 : 9월11일~9월20일

▶ 동참금 : 349만원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13일~20일(6박8일)

■ 일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